

# 3년 만의 광주불교계 봉축 준비 살펴보니

## 광주불교연합회 2월 11일 '2014 빛고를 관등축제' 기획안 발표

광주지역 봉축행사가 전통과 가족을 주제로 하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연광, 중심사 주지)는 2월 11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봉축행사 '2014 빛고를 관등축제' 기본안을 확정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빛과 생명이 함께하는 시민문화마당' 주제로 열리는 이번 봉축행사는 4월 18일 점등식을 시작으로, 4월 26~27일 2일간 운전저수지에서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기본행사와 더불어 행사 공모제를 통해 선발된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봉축행사는 크게 두 가지의 변화로 압축된다. 봉축기획단(단장 시카, 만덕사 주지)에서 기획단 준비안에는 불교단체의 행사 공모제의 시행과 가족단위 행사 개최가 눈길을 끈다.

행사 공모제는 광주지역에서 처음 실시하는 방식으로 봉축행사기간인 4월~5월 중 각 사찰과 단체에서 실시하는 불교행사를 공모해 일부 예산과 홍보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광주지역은 각 단체별로 별도의 행

사를 시행하는 곳이 많아 기획단에서는 이번 봉축행사기간에 약 20여 개의 행사를 선별해 지원과 함께 직접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우수 단체에는 추후 시상도 진행된다.

가족단위 행사도 적극 마련된다. 특히 어린이날, 어버이날 등이 함께 있는 5월을 앞두고 가족 프로그램 함께 진행해 행사 홍보에 효과를 배가한다는 방침이다.

## 행사공모제로 지역주민 참여 높이고 가족단위 프로그램으로 홍보효과 배가

먼저 운전저수지에서 열리는 양일간의 행사기간에 어린이 글·그림 그리기 대회를 비롯해, 청소년 음악놀이대회, 외국인 문화축제, 전통차시음 및 들꽃시음 등 가족들이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을 대폭 마련된다. 여기에 연꽃등 만들기, 단정 체험, 단추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부스를 설치해 가족들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체험까지 겸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2007년 5월 광주제동행렬에서 한마을선원 연희단이 행진하는 모습. 광주불교계는 이번 봉축행사로 지역 불심이 융성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행사의 핵심인 등 축제는 4월 18일 전통 장엄물(익산 미륵사지 9층탑) 점등식과 광주시청 점등식으로 시작된다. 3월 중 열리는 전통등 만들기 강습회, 4월 26~27일 운전저수지에서 열리는 전통등 전시, 소원등 터널 설치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광주불교계는 빛의 도시 광주를 10만 전통등으로 장엄한다는 포부를 갖고 있다.

부처님 오신 날을 기념하는 행사는 4월 18일 오후 6시 관등법회(봉축법회), 점등식 및 탑돌이, 대동만마당(봉축음악회)이

운전저수지 일원에서 개최되어 부처님의 탄생과 의미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담당한다.

광주불교연합회 회장 연광 스님은 "최근 몇 해 동안 광주지역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 봉축행사를 계기로 승가의 화합과 불자들의 역량을 한 곳으로 모으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진행되는 봉축행사에 광주지역 많은 대중들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공주 영평사, 화상 심리치유 프로그램 눈길

3월부터 매주 월·일요일 진행... "인터넷으로 상담해요"

공주 영평사 행복명상원이 불교계 최초로 화상을 통한 치유프로그램을 전개한다. 행복명상원은 3월부터 매주 월요일 오후 10~12시 화상 생활치유 프로그램 '그냥 그대로 행복하기'와 매주 일요일 오후 10~12시 화상 청년치유 프로그램 '삶의 좌표를 찾아서'를 개최한다.

행복명상원은 "이상과 꿈이 냉정한 사회의 벽에 부딪쳐 깨어지고 일그러지는 현실 앞에서 왜 살아야 하는지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화상을 통해 즉석에서 묻고 함께 답을 찾는 프로그램"이라며 동참을 당부했다.

한편, 영평사는 21~23일 치유명상 템



플스테이 '그냥 그대로 행복하기', 2월 28일~3월 2일은 심화명상 '깨어있는 삶, 깨달음의 길' 주제 템플스테이도 진행한다. (044)857-0202

노덕현 기자

## 일광사 승천 스님, 전주 교정협의회장 취임

정읍 일광사 주지 승천 스님이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 제10대 회장에 취임했다. 전주교도소 교정협의회(회장 백연기)는 2월 11일 전주 알펜시아 웨딩 대연회장에서 정기총회와 회장 이·취임식을 개최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도광 스님, 익산 태봉사 영산 스님을 비롯한 전북 영산작법 보존회 스님들과 유성영 국회의원, 김생기 정읍시장 등 200여 불자들이 참석해 승천 스님의 취임을 축하했다.

승천 스님은 취임사에서 "전주교도소 교정위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정협의회를 이끌겠다"며 "교정위원들의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통한 원력과 지혜를 바탕으로 교정교화의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광 스님은 축사를 통해 "승천 스님의 교정교화활동은 수용자들에게 올바른 참회를 통해 새로운 삶에 대한 희망을 주고 있다"며 "교정협의회회장의 소임을 수행하면서 보다 많은 수용자들이 지난 과오를 참회하고 범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



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승천 스님은 1997년 전주교도소 교정위원으로 위촉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7년 동안 수용자들을 위한 법회를 열어 재소자들이 건강하게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불자재소자들이 수감 중에도 신생활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살펴왔다.

2010년에는 수용자들의 재범방지에 노력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수상했으며 매년 일광사에서 경로잔치와 어린이 잔치를 개최해 왔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광주지역 사찰 '자비의 쌀' 전달



광주 광산구 금선사(사진 왼쪽)와 동원사(사진 오른쪽)의 자비의쌀 전달식 모습.

봄을 맞아 불교계의 자비심이 이웃사랑으로 승화됐다. 광주지역 사찰들은 입춘을 맞아 법회를 갖고 '자비의 쌀'과 '동전'을 마련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했다.

광산구 금선사(주지 일평)는 2월 11일 대웅전에서 신도들이 입춘 기도를 통해 마련한 자비의 쌀 2000kg(10살 200포대)를 자비신행회, 생명나눔실천 광주전남지역본부,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광주외국인복지센터, 호국금강사(공군법당)를 비롯한 지역NGO단체와 사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자비의 쌀은 각 단체를 통해 무료급식소, 다문화가정, 환우가족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또한 1년 동안 신도들이 모아온 동전통도 각 단체에 전달됐다.

일평 스님은 "가족들을 위하는 작은 마음들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달되면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으며, 부처님의 가르침

을 실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올 한 해에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는 마음을 갖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동구 동원사(주지 지장)도 13일 자비의 쌀 2000kg 지원식을 갖고 불교계 및 사회단체에 신도들이 기부한 쌀을 전달했다.

회주 지각 스님은 법문에서 "십시일반 모은 쌀이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식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동구 연화사(주지 명신)와 광산구 비전사(주지 보혜)도 입춘기도 회향을 맞아 신도들이 기부한 쌀 2000kg을 불교단체 및 사회단체를 통해 전달했다.

자비신행회 김영섭 사무처장은 "자비신행회는 매일 100여 명의 어르신들에게 무료급식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찰에서 지원해 주는 '자비의 쌀' 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지사장

## 불교와 민간신앙이 어우러진 대동 한마당



2월 13일 내소사에서 열린 석포리 당산제 입재식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의식을 올리는 모습.

불교와 민간의 토속신앙이 결합된 독특한 형태의 당산제가 부안 내소사에서 열렸다. 부안 내소사(주지 진하는)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2월 13일 내소사 경내 들당산(일명 할머니 당산나무)과 내소사 일주문 앞마루 입구의 날당산(일명 할아버지 당산나무)에서 '2014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를 개최했다.

풍물패를 앞세워 용출을 메고 내소사에 당도한 700여명의 내소사 주변 5개 마을 주민들은 내소사 대중스님들의 독경과 법패 등 불교의식에 이어 용출 줄다리기, 용줄감기, 민간주도의 제례를 당산나무에 올리며 사찰의 번영과 마을의 안녕을 기원했다.

진하 스님은 "내소사 당산제는 사찰과 지역주민이 함께 어우러져 번영과 안녕을 기원하는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소중한 전통문화유산"이라며 "체계적인 학술조

사와 고증을 거쳐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불교신앙과 민간신앙의 결합이라는 보기 드문 복합신앙의 형태를 띠고 있어 민속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는 수령 1천년과 700년으로 추정되는 내소사 경내의 들당산과 입암마을의 날당산 느티나무에 내소사와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며 해마다 정월대보름에 개최돼 왔다.

'내소사 석포리 당산제'의 원형은 내소사 주도에 하에 전승돼져 왔으며 토속신앙을 받들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사찰 내로 자연스럽게 흡수함으로써 불교신앙의 입지를 강화하면서 표교를 병행하는 형태로 계승돼 왔다. 원형적인 부분에서 기존의 당산제와 그 형식과 의식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제례의식과 굿의 형태는 불교적인 의식을 따르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 전통한복 수공법 '손누비' 과정 개설

한복을 만드는 대표적 전통 수공방법인 손누비 과정이 개설된다. 국립광주박물관이 개최하는 '전통 손누비'는 손누비를 주제로 한 체험학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다양한 작품을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술성과 실용성을 겸비한 우리의 전통 손누비에 대한 문화 이야기를 들어보고 직접 만들어 보는 다양한 체험으로 진행된다.

특히 손누비는 사찰 스님들을 포함해 신도들이 입는 법복에서는 흔히 사용되는 전통기법으로 이번 강좌에는 '전통 손누

비'와 관련한 강의, 솜 놓기, 실 초 먹이기부터 문양 넣기 등 다양한 전통 누비 기법 하나하나를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프로그램 지도는 천연염색 및 손누비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최숙정 공예가가 함께한다.

전통 손누비 강좌는 2월 21일까지 참가 신청을 받으며 2월 26일부터 5월 14일까지 매주 수요일에 국립광주박물관에서 진행된다. 참가비는 무료로 참가신청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 2014학년도 태고 전문강원 (2년제) 신입생 모집

불조의 혜명을 잇고 미래불교를 선도할 학인스님을 태고 전문강원에서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입학자격: 본 종단 승적보유자 및 타 종단 승려
- 인 원: 1학년 - 30명 (입장자 10명)
- 모집기간: 2014년 2월 10일 - 2월 25일
- 구비서류
  - 입학원서(소정양식) ..... 1부
  - 승려증(또는 수계증)사본 ..... 1부
  - 건강진단서(입장자에 한함) ..... 1부
  - 주민등록등본 ..... 1부
  - 반명함판 사진(가사장삼 복장) ..... 2매
- 전형방법: 서류심사와 면접
- 등록금: 50만원
- 기숙사비(입장자에 한함): 30만원
- 입학식: 2014년 2월 28일(금)
- 개강일: 2014년 3월 4일(화)
- 문의처: 제주교구 종무원
  - ☎ 064)752-2710 제주시 전봉로 97-1
  - 강원 010-2896-8108 제주시 평화로 2018

- ◆ 강원 교수 소개
  - 수업스님
    - 종립 동방불교대학 교수 (금강경 저자)
    - 중앙승가대학 불교학과 역경학 전공 학술박사
    -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문학박사
    - 전주대학교 철학과, 중어중문학과 강사
  - 구암스님
    - 제주도 무형문화재 제15호
    - 제주불교의식 예능보유자
    - 전주불교 문화예술원장
    - 제주 범음법패보존회 총재
    - 태고전문강원 교육원장
  - 휴진스님
    - 극락사 주지
  - 안재철 교수
    - 종립 동방불교대학 출강(치문 등 강의)
    - (치문경훈의 문법적 이해) 저자
    - 제주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교수
  - 김용철 교수
    -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한국불교태고종 태고 전문강원 교육원장 구암 성천

##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 제 86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 과정 (야간 및 통상생)

기본과정 (3개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서, 쇄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자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대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2014년 3월 14일까지
- ◆ 개강일시: 2014년 3월 17일(일요일) 개강  
매주 (월·목)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 ◆ 제출서류: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제도 포교원(사찰)장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敎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